



① 육군훈련소 호국열우사 전경. 왼쪽이 신축법당, 오른쪽이 기존 법당이다.
 ②상량식에는 청동 현판이 사용됐다.
 ③그동안 불사에 참여한 동참자 현판
 ④상량식에는 600여 불자가 참여했다.
 ⑤지인 스님의 진혼무

비상하는 젊은 불자들의 요람, 마침내 대들보 올리다

조계종 군중교구, 5일 논산 호국열우사 신축법당 상량식 봉행

“군포교 발전의 토대가 될 호국열우사 신축법당의 원만 회향을 기원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논산 육군훈련소 11월 5일 논산 육군훈련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조계종 군중교구(교구장 자광)가 진행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열우사 신축법당 상량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호국 열우사를 찾은 600여 불자들은 3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호국 열우사 신축법당의 자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건물 기둥과 지붕뿐이지만 그 크기 만으로 완공 시 위용을 가늠케 했다. 행사를 앞두고는 흐릴 것으로 예상됐던 날 씨조차 맑게 개었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지지사 주지 성운 스님,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동학사 주지 견성 스님, 감사 주지 태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 50여 명과 군법사 80여 명, 김정호 육군훈련소 소장,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 군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했다. 또 민병덕 국군불교후원회장, 김옥분 불교여성회 회장 등 그동안 호국 열우사 신축법당 건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 신축 불사 회향을 서원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남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상량식에서는 군법당이 들어서는 논산에서 희생된 수많은 군장병과 무생명을 위로하는 지인 스님의 진혼무가 진행됐다.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은 “불사를 둘러싼 아쉬움과 섭섭함을 다 털고 원만한 회향을 위해 상량식을 열게 됐다”며 “훗날 장병 포교의 요람이 될 호국 열

우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좀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120억 원의 공사비용 중 75억 원이 모인 상태다. 30년간 설립당장 장사로 모은 돈을 회사한 노보살님, 본인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며 용돈을 모아 불사에 회사한 노보살님 등 수많은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의 불사 진행을 기원하는 격려사도 이어졌다. 보선 스님은 “호국열우사는 한국불교 최대 전법도량으로 군포교의 새 역사, 한국불교 중흥의 전환이 될 대불사”라며 “원만 성취를 위해 모든 사부대중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지지사 주지 성운 스님은 “논산훈련소는 군 장병을 육성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의 축하와 격려의 말에 이어 사부대중은 일제

히 일어나 “정법포교의 깃발 아래 걸어 온 길음마다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이 도량이 원만 중창돼 모든 젊은 청년의 발원을 다 품어줄 대도량으로 우뚝설 때 군포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원했다. 끝으로 “상량, 상량, 상량”의 세 번의 구호와 함께 ‘비상하는 젊은 불자들의 요람! 영원하소서’라는 글귀가 적인 상량문이 대들보에 걸려졌다. 이날 상량식을 시작으로 호국 열우사는 본격적인 불사 마무리에 들어가 2012년 부처님 오신날 완공될 예정이다. 대지 4만 6000㎡에 연면적 4680㎡(1415평) 규모로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단식 실내 바닥공사 및 지붕 덮개 씌우기가 완료됐으며 외장 및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15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존의 호국 열우사 법당은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3500명 수용이 가능한 신축법당을 포함해 최대 5000명 규모의 법회 등 행사

가 가능하다. 법당에는 4m높이의 삼존불을 비롯해 원불 1560기가 봉안되며 스님 대기실과 합창단실, 공연준비실 또한 마련된다. 군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사용한 개인용 의자 3500석이 구비된다. 호국 열우사 불사에는 4500여 대중이 참여해 총공사비 120억 원 중 75억 원이 모인 상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해인사 자비원에 거주하는 영진 스님이 각각 10억 원을 보시했으며 재가자 이분신(가명) 씨가 5억 원을,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3억 원을 회사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보시는 150여 명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45억 원이 모자란 상태로 군중교구는 삼존불 복장 반야심경 사경불사 등을 통해 이를 모연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번호 301-0063-3042-71(예금주: 군중특별교구)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잊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법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정,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같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재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거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

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